

삼성전자, 휴대폰 16만대 리콜

미국서 2개 모델 자발적 회수 ... 긴급통화 기능 결함사실 공지

삼성전자가 미국시장에 출시한 휴대폰 16만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다.

5월2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, 최근 지터백 <SPH-A110>, <SPH-A120> 등 2개 모델의 긴급통화 기능 결함으로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하고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(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, CPSC)에 통보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공지했다.

삼성전자는 현재 제품 보유자에게 무상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실시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회사로 연락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.

문제가 된 2개 모델은 통화불능 지역에서 <통화지역 이탈, 이후 다시 시도> 메시지가 뜬 후 911 긴급통화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등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.

지터백 시리즈는 2008년 3월 미국시장에 출시된 노년층 대상 프리미엄 실버폰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5/27>